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4. 다 나와 찬송드리세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일상의 분주한 흐름을 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주 노동자들의 한과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 때문입니다.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찾아온 이 땅이 저들에게 절망의 땅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망쳐놓은 일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중도에서 어긋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지켜주십시오. 화급한 일과 꼭 해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꼭 해야 할 일에 우리 마음을 모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벧전5:6-7	인도자
♠ 교 독 문	12. 시편32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함께
성경봉독	눅10:38-42	김용길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주의 발아래 앉아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헌신의 찬송 497.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말 건네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오. 삶으로 그 말씀의 진실됨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세상일에 정신이 팔린 채 살다보니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날	성서의 평화(20)/김기석 목사
가족과 함께	기도 : 이재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이증자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용진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김용길	김훈동	배상순	박효선	백혜숙

무엇에 신실한 사람인가?

기독교대한감리회 ‘희망프로젝트’에서는 한국 감리교인의 상징적인 대명사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정했다. 영어로는 ‘Faithful Man’이라고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명칭은 메도디스트 신앙과 생활의 진면목을 100%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말과 우리 생각의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이름보다 실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름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 감리교인들이 무엇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 메도디스트들이 지켰던 것들을 오늘 한국에서도 잘 지키는 일일 것이다. 처음 메도디스트들이 신실하게 지켰던 것들은 존 웨슬리가 1742년 메도디스트 ‘연합신도회’(United Society)를 결성하면서 동시에 발표한 ‘총칙’(General Rules)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초기 메도디스트 속회(Class Meeting)와 반회(Band Meeting)의 규칙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연합신도회의 규칙과 속회와 반회의 규칙들은 메도디스트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규칙이었다. 감리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에 신실한 사람들인가?

모든 악을 피해야 한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과 남에게 해로운 일,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혹시 다른 교파에 속한 교인들이 하는 것이라도 감리교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 즉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되었다.

감리교인들은 교회와 직장과 사회 어디서든지 언제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멀리 피하는 사람들이었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그들의 열심 있고 특징 있는 신앙생활 때문에 비난과 조롱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에서 존경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영국 사회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영국 사회에서 감리교인들은 도덕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20-30년쯤 되었을 때부터는 점차로 영국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감리교인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되었다.

감리교인들은 모든 상업적 거래에서 물건값을 속이지 않았다. 그들은 무슨 물건이든 살 때에 물건값을 깎지도 않았다. 그들은 모든 세금을 정직하게 내었으며, 관세를 물지 않는 물건을 사지도 않았다. 그들은 사채를 주지도 빌리지도 않았으며, 불법적인 이득을 위하여 고리대금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불경건한 오락을 피했으며, 그런 것을 하는 곳에 가지도 않았다.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누구나 자주 가는 연극장에도 감리교인들은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의 연극장은 대다수도덕적으로 불쾌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다. 감리교인들은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고, 값비싼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를 지니지 않았다. 감리교인들은 술로 타락하고 망하여가는 영국 사회에서 술을 만들지도 팔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감리교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직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외상을 지거나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 당시 산업지대에서는 공해가 심하였다. 많은 공장에서는 물을 오염시키고, 악취 하는 물과 가스화 연기를 방출하고, 공기와 토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감리교인들은 그런 일도 피했다. 감리교인들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투기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감리교인들은 어디서나 감리교의 성결의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존경받았다.

모든 선을 행해야 한다.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감리교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보였을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솔선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비치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감리교인들이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감리교인들을 보고 ‘선행자들’(Good-doers)이라고까지 불렀다. 그들은 선행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계속)

(이 글은 영등포 중앙교회의 담임목사이며 감신대 겸임교수이신 김진두 목사님이 <<기독교세계>> 2월호에 쓰신 글입니다. 김진두 목사님은 웨슬리 신학 전공자입니다.)

그댄 얼마나 깊으신가요

-작자 미상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얇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 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
우물의 깊이와 물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얇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권호천 배상순 김정길 최숙화 김필순 김혜권 박창운 허정윤 안정숙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이봉옥 이선림 이인웅 이한림 김명희 홍순구
 안홍숙 조문규 진정숙 최종미 박홍엽 이성운 권미숙 왕성환 강순배

월정헌금:

고속이 고재중 권 순 윤정화 김영순 김정섭 김정애 문복순 김종철
 고영애 배부례 박어진 서정순 송의섭 이갑재 이정은 전영규 김경수
 전영자 조순덕 황경순 배연희 김민주

감사헌금:

김준우 노순덕 김성중 김지혜 정완수 김재광 김필순 권채영 권미숙
 노순옥 왕성환 강순배 김훈동 유경순 김서현 김권희 이옥희 한지혜
 임주빈 최현옥 무명2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장영숙 김정섭 이선림 김윤정 조관행 홍선희 무명2
 (누계- 30,10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차 혜 심	정 두 리	홍 순 덕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교 회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서 원 금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해 자	김 진 경
갈 린 리	안 정 숙	박 애 순	안 정 숙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곽 권 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희 우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김 금 순	이 봉 옥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구 성 실
가 버 나 움	안 홍 숙	오 현 정	구 명 자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수 진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정 진 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설날** : 오늘도 다른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빕니다. 오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2. **성회 수요일** : 오는 수요일(21일)은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3. **아름다운 원로** : 오는 21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4. **신앙강좌** : 다음 주일 오후 집회는 2007년도 제1회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희년마을교회 최철호 목사님께서 기독교적 공동체의 꿈과 현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 **새봄 성경학교** : 유초등부 새봄맞이 성경학교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6. **예배 준비** :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교우들끼리는 눈인사만 나누시고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근대는 소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우리 마음을 흠여지게 만듭니다.
7. **별세** :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투병중이던 최채수 성도께서 지난 14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8.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시편 3~4편씩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시편에 비친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 토요봉사(24일): 구명자 송양진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정두리 (생일), 이순정 (부모님 기일)

< 새교우 소개 >

2709 김지현 소속: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